

“해양리조트·해삼사업 본궤도...보배섬 미래 기틀 마련 박차”

민선 6기 2년 설계
이동진 진도군수



“지금에 ‘보배 섬’ 진도의 미래를 가르는 골든 타임입니다. 군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10년 후, 100년 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최근 업무 담당과장,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랑 거리’ 조성사업과 권역·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총 4개 분야 29개 주요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민선 6기 출범 때 ‘군민소득 1조원 달성,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군정 핵심 목표로 잡고 그동안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기틀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인증면적 확대, 고소득 특화품목·농·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농·어민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전북 양식업 수출단지 본격 조성
가고 싶은 섬 개발 등 인프라 확충
세월호 아픔 딛고 지역경제 살리기

특히 ‘전북 양식업 수출전략단지’와 ‘생태복합 양식단지’ 조성을 비롯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울금산업 클러스터, 김정쌀 생산 가공, ‘진도행복 365 가공 프로젝트’, ‘진도행복 팍 하우스’ 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명 진도해양리조트 사업과 장지도 그룹 해삼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인공 씨감자와 모노레일 설치, ‘신비의 바닷길’ 짙 와이어(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 등 규모있는 투자유치가 결실을 맺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군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가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구축했다. 진도 쌀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대표 주류업체인 국순당에 매년 1300여t(20억원)이 납품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37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진 ‘명량대첩 축제’, ‘진돗개 페스티벌’, ‘진도 문화예술제’ 등 차별화된 진도만의 색깔 있는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109만명 유치에 553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이 군수는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 한바퀴’ 시행과 KTX 진도아리랑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 체결로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도리산 전망대 준공과 명량대첩 승전광장 정비사업,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조성사업, 회동 관광지 정비사업, 판매도 ‘가고 싶은 섬’ 개발 등 관광인프라 확충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창군(創郡) 이래 최초로 열린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65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해 28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둬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적극 나섰다.

다.
물류비 절감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도 18호선 녹전~금골간 도로확장사업을 준공한 데 이어 포산~서명간 도로정비사업 설계를 추진했다. 또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과 함께 초평 국가어항 신규 지정, 서명 다기능어항 건설 등 물류·관광·산업 복합 항만사업 등을 추진해 서남해안 거점도시 기반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군은 면 소재지·생활권역 종합 정비사업 등을 통해 소득증대 기반시설 조성하고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고, 공모사업 등 21건에 8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군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2016년을 진도 지역 발전의 대전환기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군수는 “민선 6기 중심은 군민”이라며 “현재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중요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서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수목원에 희귀새 팔색조 서식 확인

멸종위기종 II급...2000ha 상록활엽수림 먹이 풍부



전남도 산림자연연구소는 “완도수목원 난대 상록활엽수림에서 최근 천연기념물 204호이자 멸종위기종 II급 희귀새인 팔색조(사진)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팔색조는 몸 길이가 18cm이며 7가지 무지개색 깃털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등과 날개는 녹색이고, 어깨와 위쪽지깃은 남색, 꼬리는 검정색, 눈썹선은 황백색, 다리

는 황갈색, 이마에서 뒷머리까지는 갈색이나 중앙에는 검은선이 흐르고 있다. 특히 목 옆, 가슴, 옆구리는 황색빛이 매우 강해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팔색조의 국가별 서식지, 개체 수 등 정확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완도 수목원에서 여러 개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성격이 매우 예민해서 국한된 지역에서 번식하는 종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는 5월에 찾아와 6~8월 새끼를 낳고 10월 겨울을 나기 위해 인도차이나, 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까지 남하하는 매우 아름답고 희귀한 여름철새다.
주요 서식지는 주로 바닷가와 섬 또는 내륙 비탈면의 잡목림이나 활엽수림이며

지렁이와 딱정벌레 등을 먹는다. 완도수목원은 동백숲을 비롯한 2000여ha에 이르는 상록 활엽수림이 분포하고 비옥하며 습한 곳이 많아 지렁이 등 먹이가 풍부해 팔색조가 서식하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수목원에서 팔색조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이후 발견 개체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완도수목원은 국내 최대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힐링하기 위해 찾고 있고, 철새들도 그 가치를 알고 해마다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진도군 재난대응 훈련 평가 ‘대통령상’

국민안전처 선정...해양사고 매뉴얼 정비 호평

진도군이 지난 6월 국민안전처 주관의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시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진도군은 지난 5월 중순 전국에서 최초로 민·관·군·경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선박사고에 대비한 유기적인 동원 태세와 협업체제를 구축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수습과 복구 중심의 훈련에서 벗어나 초기단계 인명구조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와 선박화재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성실히 수행했다. 해양재난 발생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10분) 내에 지역 민간 어선들이 사고 현장에

손영호(왼쪽 두번째) 진도군 부군수가 지난 6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도착해 인명을 구조하는 실제사고 초기 대응 매뉴얼 정비하는데 노력했다.
군은 지난 6월말 전라남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선 6기 군정목표인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건설’을 위해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안전진도 실천연합’을 구성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올리베티 국제 슬로시티 사무총장

‘제2회 슬로시티 청산도 어워드’ 수상

베에르 조르지오 올리베티(사진 가운데) 국제 슬로시티 사무총장이 ‘제2회 슬로시티 청산도 어워드’를 수상했다.
완도군은 최근 이탈리아 아비아테그라소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시장·군수 총회’에서 올리베티 사무총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올리베티 사무총장은 슬로시티 인증과 초기 슬로시티 정착에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리베티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군수를 대신해 총회에 참석한 이주찬 관광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청산도가 존재하도록 기초를 잡아준 올리베티 사무총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 상은 청산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의미있는 상으로 기쁘게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과 한국슬로시티 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슬로시티 청산도 어워드’는 청산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제1회 청산도 어워드는 배우 손현주 씨와 한 국슬로시티

본부 장희정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포럼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영광군	351-1004	함평군	324-8111	나주시	335-5501(시·군)	화순군	374-4423	순천시	746-8111	광양시	792-8111																																																								
신안군	278-8111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남원시	283-1540	영암군	471-1717	장흥군	863-8822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여주시	692-0997																																																				
진도군	543-0100	해남군	537-6767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완도군	554-6677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광부	652-0175	광명	264-2012	광동	222-9054	광부흥	225-6001	광백운	267-4748	광선	673-4698	광순	675-6530	광무	525-3761	광서광주	372-2352	광신안	369-0583	광하	676-6805	광안	512-1732	광산	571-7658	광치	266-7601	광봉	522-7752	광산	512-8116	광천	371-9818	광곡	961-2339	광양	222-1896	광흥	224-6804	광월	673-1600	광단	973-2900	광장	224-8212	광치	376-6511	광암	682-8112	광남	959-1500	광화	375-9662